2022년 7월 31일 8-31호

도약의 달
선교 주일
만남과 나눔의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일직선의 길도, 구부러진 길도
예수님 말씀이면... 갑니다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열왕기하 2:9)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July 31, 12:30p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 / 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내권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출애굽기 14: 1-14
	"생사의 위기도 뛰어넘는 승리자"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찬송 / 342장 - 너 시험을 당해 (통일찬송가 395장)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 / 나눔)	봉 헌 / 오정은 집사, 유덕하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가 348장)
삶과 세상으로	* **찬 양 / 세상 모든 민족이**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찬양과 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데살로니가전서 3:11-13

마음을 굳건하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 역 / 행 사

8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합시다.

1. **2022년**은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는 해**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열왕기하 2:9)
   건강한 성장, 풍성한 열매, 더 많은 나눔을 추구하는 교회
2. **선교주일 / 만남과 나눔의 주간** 가정과 일터에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3. **중고등부 여름수련회(8월 5-7일/ 금-주일)** 말씀과 결단, 은혜와 성령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강사, 교사들과 학생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4. **PCoP 사역 협력 Rummage Sale (9/17)**을 위해 9/11까지 필요한 물품을 모아 주십시오. 교회 건물 미화(페이트 작업 및 섬김의 교회 배너 설치)에 제안과 협력을 부탁합니다.
5. **전도와 섬김** 교회로 인도할 형제,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도움이 됩시다.
6. **찬양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을 격려하고 성령의 인도를 위해 더 기도합시다.
7.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주일 오전11시-11시 45분)**
   말씀과 기도는 영혼의 생명줄입니다. 모두 참여합시다
8. **믿음의 뿌리내리기**
   1) **기도운동** 성령충만과 복음의 능력을 위해
   2) **예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결단

▶**교우 동정 - 한국 방문:** 구 민,은강 집사 가정 / 박강현 Caleb

▶8월의 사역 - **선교주일**(7/31) **만남과 나눔 주간**(7/31-6) **중고등부 수련회**(8/5-7) **믿음성장과 신앙성숙 주간**(7-13) **세상의 소금과 빛 된 주간**(14-20) **선교주간**(21-27) **선교주일**(28)

♥생일축하♥ **최성주**(16) **김신실**(18)

기도제목

1. 자녀의 건강문제로 근심하는 가정을 위해
2. 새로운 직장을 찾는 가정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3. 대학진학을 앞둔 자녀와 부모를 위해
4. Youth Ministry와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5. 새로운 교우의 적응과 적극적 전도운동을 위해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7/31	8/7	8/14	8/21
	최내권집사	김훈태집사	박진성집사	구은강집사
주일헌금위원	7/31	8/7	8/14	8/21
	오정은집사/유덕하집사		최선윤집사/김훈태집사	
주일안내위원	7월	8월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말씀노트

말 씀 노 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 / 출애굽기 13:17-22

인생 길이 평탄할 하나님을 쉽게 잊다가도, 인생에 위기나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사모하게 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에서도 인도하셨다는 점이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저항하고 거부하고, 스스로의 방법과 길을 고집하여 더 멀리 돌아오는 경험도 한다. 세상 기준으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선한 결과도 경험한다. 그러니 사람의 경험과 생각과 일치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순종하자.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자. 귀가 닫혀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를 매일의 삶에서 체험하도록 해 준다.

생사의 위기도 뛰어넘는 승리자 / 출애굽기 14:1-14

생사의 위기를 마주한 사람의 반응?

요동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는 모세 평안과 담대함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둘째, 사람은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약함을 짊어진 모세에게 영광과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

말씀요약

생사의 위기도 뛰어넘는 승리자 / 출애굽기 14:1-14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짧고 평탄한 길 대신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급기야 그들은 홍해에 도착했다. 바로와 이집트 군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방향을 잃 은 지리멸렬한 모습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들의 신이 두려워 해방시켜 주었는데, 재앙과장자를 잃은 복수의 기회가 찾아 왔도다!"라고.

하나님의 예고처럼, 바로는 이집트의 전차와 군대는 이스라엘을 바짝 쫓아왔다. 이스라엘은 홍해에 수장 되거나, 이집트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 노예가 되어 이집트로 끌려 갈 상황이었다. 두려움에 찬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자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다.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왜"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니 보기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을 전한다. 크게 두려워하며 요동치는 그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즉,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소망을 약속하시면 절망이 소망이 되 며, 승리를 약속하시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이집트의 추격과 이집트의 패배를 예고하셨다. 때문에 보이는 두려움에도 모세는 담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다.

둘째,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쉬임 없는 원망과 불평의 고통 을 짊어졌다. 이스라엘이 큰 죄를 범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 변하도록 모세는 섬겼다.

하나님의 계획을 앎으로 담대하게 역경을 헤쳐 나간 모세는 인생의 위기 순간에 믿음이 더 욱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평안하 고 담대할 수 있다.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덤벼도, 악인이 성도를 삼키려 해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된다. 모세가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연약함과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섬겼듯이, 우리도 교회와 이웃의 허물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이 필요하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전도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돼서 못 믿겠어.
하나님 보여주면 믿지"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당연한 이야기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머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일까? 믿음을 통해 서 이해에 이르는 것일까?
요즘엔 주소만 알면 내비게이션으로 정확히 찾아갈 수 있지만,
예전에 내 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꼭 팩스로 미리 약도를 받았었다.
약도를 보고 따라갔다. 길을 잘 모르지만, 약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믿고 가는 것이다. 가보니까 맞다.
그러면 그다음 에 갈 때는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가는 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이해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먼저 믿고 이해가 되는 것이다.** 약도를 받아들고 믿으려 하지 않고 '모르는 길인데 이 길이 맞을까?' 의심하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 는가?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이야기다. 노아 하면 생각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
'의인'.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칭하셨다
(창 6:9). 그러면 노아에겐 죄가 없었을까? 실수가 없었을까?
아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은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잠든
인간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데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 하셨을까?

행함으로만 보면 세상에 온전한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맞다. 그러니 노아가 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고
그렇게 좋으셔서 "노아는 참 좋아, 의인이야. 내 마음에 들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 밖에 없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다. 이해 가 되든 안 되든, 상식에 맞든 맞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사람 이었다.

성경을 보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노아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서 내가 홍수로 다 쓸어버릴 거 야.
그러니 너는 가서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신다면 쉽게 믿어졌을까?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에 토 달지 않고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고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 그냥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 노아처럼 그냥 방주를 지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쉽지

않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우리의 생각, 가치관, 인생관 곧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심어주신 형상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세상 식이 있다. 세상의 길이 있고, 세상의 꾀와 요령이 있다. 그것은 만만치 않다. 대단하 고 힘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다들 그 길로 가는데 나만 다른 길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딴 길이시지 않은가?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 한 세상의 꾀와 법과 식과 요령을 거부하고 홀로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면서 산다는 건 쉽지 않다.

내비게이션에 따라 운전하다 보면 재미있는 생각이 든다.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이 사람 말도 믿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믿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야기한다.
"하나님, 그냥 말씀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게요.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인 줄을 믿는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는 줄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별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마 음을 기뻐하시고 의인이라고 칭해주시는 분이시다.**

김동호, 『날마다 기막힌 기벽: 힘든 세상에서 천국 살기』

최은경 작가

1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아 장이 안 옵니까?

선저, 복잡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불안하고 복잡한 내 마음 드려요.
·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리고 걱정되는 것들,
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복잡한
·음과 상황을 다스려주실 거예요.

·정되는 일이 생길 때, 기억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2:30 P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2:30 PM
주일성경공부 / SUNDAY BIBLE STUDIES : SUNDAY 11:00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7:3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2: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800 East Palatine Road, Palatine, Illinois 60074